

로이터·블룸버그, 특허권 법정 싸움

경제전문 통신사인 영국의 로이터와 미국의 블룸버그가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법정 싸움에 관하여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13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지난달 12일 자사의 외환 및 주식 트레이딩(거래)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블룸버그를 상대로 수백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뉴욕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로이터는 소장에서 블룸버그가 자사의 핵심상품인 '매칭시스템' 관련 특허 3건을 무단 도용, '과워매치'라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자동화 트레이딩 기술 개발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면서 '지적재산권의 무단 사용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사주로 있는 블룸버그 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나, 충격을 다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이딩 시스템과 전자정보 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두 통신사는 최근 몇달간 이 문제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트레이딩 기술 서비스사업으로 연간 약 4억9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려왔으나, 블룸버그가 같은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장세어를 급속히 빼앗겨 상장 13년만인 지난해 첫 적자를 기록한 이래 올 초 5억5천5백만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경영난을 겪어왔다.

한국,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 차기 의장국으로 선임

한국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7차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다.

IPEG는 APEC 지역내의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APEC 산하의 지식재산분야 위원회로, 지난 1996년 창설된 이후 17회에 걸쳐 아·태 지역내 지식재산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APEC 기구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위원회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협상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세계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APEC IPEG 의장국에 한국이 선임된 것은, APEC 지식재산권 분야의 우리 정부 총괄책임부서인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심혈을 기울여온 지식재산정책의 세계화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임과 동시에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 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청은 국제감각이 뛰어나고 협상, 조정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곧 선정하여 APEC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며, 차기 의장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제18차 IPEG 회의부터 2년 임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니, 중국 BYD와 특허 분쟁 준비중

일본의 소니가 중국전지업체 BYD와 특허분쟁을 준비중이다. 지난달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 리튬이온전지업체 2위인 소니는 '중국의 전지제조업체 BYD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지법에 BYD를 제소키로 한 소니측은 'BYD가 전지의 기간재료인 전극재와 패키지 구조 등 리튬이온전지 내부구조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BYD 제품의 일본 내 판매와 샘플 제품의 양도·전시 등을 모두 중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의 이같은 행동은 급속히 뒤를 추격하는 3위 BYD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BYD는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 전지산업의 대표주자로서 이미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 3위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국과 중국시장에 집중해온 BYD가 최근 일본에 영업거점을 설치, 일본진출을 노리며 소니를 자극하기도 했다. 특허권을 무기로 미리 선수를 친 소니는 '(이번에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받으면) 해외에서 BYD 제품의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제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리튬전지업체 1위인 산요전기가 이미 지난해 9월 미국 내 계열사 '산요에너지(USA)'를 통해 BYD를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산요전기는 최근 올해 생산량을 30% 가량 늘리는 등 생산량 확대를 통한 한국·중국 견제에도 나서고 있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발명의 10계명 ⑩

불가능한 발명은 피하자

김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자 드디어 발명의 십계명 중 마지막 10계명까지 왔다!

정상이야!!

우 앓싸라비아~!!

어머 어쨌워~!!

그렇게 자여왔잖아

자 여하튼 10번째 계명은

「불가능한 발명은 피하자!」이다!!

불가능? 아~!!

NO~!!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한 위인도 있지만

실제 사전에는 있느냐?

현실적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따라서 현명한 태도는 불가능을 피하는 것이지!

괜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는 거란다!

그래도 난 불가능에 도전해 볼테야~!!

점다는데 뭐야? 도전이야? 도전!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이러한데 있는거지!

저새 불가능한 연구하다가 이렇게 됐다우~!

결국 망하고 풍산 흩었네.

흥어잉

불가능

아까 그 시간 낭비

다시 말해 발명은 꿈이 아니다.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사회와 소비자들의 취향엔

상관없이 자신만의 생각이 맞다고 만든 물건(발명품)은 팔릴리가 없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꿈같이 불가능한 것들은 금물이다.

평

가령 첫등이로 금메달을 만들겠다는 연구술이나 사람이 영원히 죽지않게 할 수 있다는 불노장생 약을 개발한다는 것.

영원히 움직이게 하겠다는 영구 기관 계통의 발명은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NO!

언젠가 모든 인류의 바램으로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들 어렵다.

이들 「발명의 3대 불가능 분야」로 기록하고 있지.

NO

발명의 3대 불가능

명실할 것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3대 불가능 분야에 도전한 발명가들은

모두 매가왕신 했다는 점이다.

나 누군지 모르지! 아까 잠전에 알아버지여~!

황-

잉잉잉~!!

어니, 종이 왜 울지?

그럼 제가 오랫동안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던 것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 어시내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투명인간이 되는 약이요!

너 현재 근이이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니?

남들은 초등학생이라고 봐요~!